

서남표 KAIST 총장 “플라스틱공학상”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서남표(71) 총장이 미국 플라스틱공학회(Society of Plastics Engineers)의 종신 업적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는다고 3월29일 발표했다.

서남표 총장은 고분자 가공분야에서의 뛰어난 연구업적을 학회로부터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서남표 총장은 미국 MIT 기계공학과 교수 재직 당시 전 세계에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초미세 발포플라스틱(MuCell)과 고압 폼 몰딩기술, 고분자재료를 위한 정전기 전하부식 비파괴검사(NDE: Non-Destructive Examination)기술, 폼·직선 플라스틱 적층공정 등을 발명했다.

또 산학협력연구 프로그램인 <MIT-산업 고분자 가공 프로그램>을 미국 최초로 개설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이를 모델로 많은 대학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5월6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2007 SPE 연례기술회의에서 있게 된다.

<화학저널 2007/03/30>